

고대 영산강유역권 지역 수장(首長)의 성격에 대한 시론*

최영은**

초록 영산강유역권이란 영산강유역 및 물질문화가 유사한 그 주변지역을 칭하는 용어로서 삼국시대에 대형 옹관, 혹은 거대한 분구묘를 축조하던 지역이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사학과와 고고학계에서는 백제가 영산강유역권의 정치체들을 통합하는 시점과 과정에 대해 이러한 무덤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배출하였다. 그 결과 새롭게 밝혀진 부분도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영산강유역권 정치체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 백제 지방단위로 편제되었다는 추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체 수장들의 적극성과 다양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영산강유역권에서 초기 정치체의 성장과 수장권의 대두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였다. 다양한 청동의기류를 무덤에 부장한 초기철기시대 수장은 원삼국시대에 들어와서 군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제형(梯形) 분구묘의 양상을 보면 영산강유역권에서는 한반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수장의 권력이 집단 성원을 초월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4세기 무렵에 해당되는 해남 독수리봉고분에서 비로소 수장 개인의 권력을 드러내는 고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5세기 이후 영산강유역권 각지에서 나타난 거대한 분구묘를 통해 백제 중앙과는 구별되는 유력한 수장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전 연구에서는 이들 수장층의 공통성을 전제로 백제 중앙과 지역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나 고분의 구조와 부장품을 통해 볼 때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제 중앙이 지역사회를 재편하여 지방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응한 수장층의 반응은 단일하지 않는데 이를 '지방통치에서의 참여와 미참여', '백제 중앙의 포섭과 배제' 등의 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백제, 영산강유역권, 수장, 지방통치, 관인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1. 머리말

영산강유역권¹의 고대사회는 대형 전용(專用) 옹관과 분구묘로 대표되는 현지의 토착 묘제가 6세기 대까지 존속한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근초고왕이 4세기 후반 전남지역의 마한 세력을 경략하여 백제로 복속시켰다는 고대사학계의 통설과는 달리, 백제 중앙과 구별되면서 지역색이 강한 고분 문화가 비교적 늦은 시점까지 유지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백제의 지방 지배와 지역사회의 독자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중 이 지역의 고고학적 특징을 백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을 영위한 토착 집단이 존속했던 증거로 보고, 그 역사적 실체를 마한(馬韓)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영산강유역권은 백제에 병합되지 않은 마한 세력, 혹은 마한계 문화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마지막 중심지로 인식된다.²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고대사회에 관한 연구는 고고 자료의 축적에 힘입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산강유역권 고대사회의 동향을 ‘백제로의 병합’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에 둔 ‘마한의 소멸’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³

이러한 문제 제기는 문헌 사료의 공백으로 인해 백제의 일부, 지방으로

-
- 1 고고학적으로 ‘영산강유역’은 영산강수계와 그와 유사한 문화양상을 보이는 영산강 서북부의 고창·영광, 남부의 해남, 탐진강 유역의 강진·장흥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김낙중(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p. 23]. 본고도 이러한 범위 설정을 따르되, 지리적 의미의 영산강유역과 구분하기 위해 ‘영산강유역권’으로 지칭하였다.
 - 2 成洛俊(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 『百濟文化』 1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崔夢龍(1987),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林永珍(1995), 「全南地域 石室墳의 受容背景과 變遷」, 『先史와 古代』 6, 한국고대학회.
 - 3 임영진(2024), 「마한 소멸시기 문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116, 한국고대사학회, pp. 24-25.

만 객체화되었던 지역사회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묘제나 취락의 분포와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역 정치체의 다양한 존재 양태가 드러났으며, 이를 종합한 ‘광역의 영산강유역 정치체’⁴ 혹은 ‘전남지역 마한 사회’⁵의 구조를 상당 부분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와 별개의 정치체로서의 영산강유역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존속 시점을 6세기 중반까지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⁶ 영산강유역권에 존속했던 독자적 마한 정치체를 상정하더라도, 그 내부의 지배 구조나 실체를 밝히고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영산강유역권의 고대사회가 특정 시점에 마한이었는지, 백제였는지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분기점을 찾는 데에 집중하였던 연구 경향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시대 동안 영산강유역권의 집단이 밟았던 길은 마한에서 백제로의 일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전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정치적 독자성을 상실하고 백제 중앙에 종속되는 큰 흐름 속에서, 영산강유역권의 여러 집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영산강유역권의 고대사회를 구성했던 각 지역 사회의 존재 양태와 성격, 백제 중앙과의 길항 관계에 주목하고 그 다양한 층차를 밝히려는 시도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 집단, 즉 정치체를 지배, 통솔하고 동시에 그 지역을 대표하여 백제 중앙과 정치적 관계를 맺었던 현지 유력자, 즉 수장(首長)의 성

4 김낙중(2009); 김낙중(2011)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成長과 變動 過程」, 『百濟學報』 6, 백제학회.

5 金承玉(2014),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百濟學報』 11, 백제학회.

6 김영심(2022),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百濟學報』 41, 백제학회, pp. 28-29.

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수장은 공동체를 이끌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나머지 구성원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숙련자로 정의된다. 수장이 지도하는 수장사회는 정치·경제·의례적 기구를 갖춘 광역적 공동체로 편성된다.⁷ 이러한 정의를 적용해보면, 영산강유역권 지역 정치체의 수장은 대외적으로 백제 중앙이나 다른 지역 정치체에 대해 단위 정치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려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위계 구조의 정점에서 일반 성원과 자신을 구분하고 위계화한 복합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영산강유역권 지역 정치체를 이끌었던 수장들의 존재 양태와 시간에 따른 성격 변화를 시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산강유역권에서 초보적인 정치체가 형성되고 수장적 존재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수장의 권력이 고도화되는 6세기 대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특히 5~6세기는 지역 정치체 내부의 복잡도와 수장권이 가장 진전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이미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산강유역권 지역 수장의 존재 양태와 성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산강유역권 고대사회의 실체와 구조를 이해하고 고대의 중앙-지방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영산강유역권 정치체와 수장의 등장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수장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 안에서 개별 취락이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구성된 지역 정치체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한

7 티모시 K. 얼, 김범철 역(2024), 『수장, 수장사회: 복합사회 고고학 입문』, 진인진, pp. 22-25.

국고대사 연구에서 수장 개념은 고대국가 성립 이전의 복합사회부터 그 이후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동일한 수장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대상, 발전 단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장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영산강유역권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에서 정치체의 형성은 기원전 2세기 대 중국 문헌에 ‘국’(國)으로 표현되는 단위 정치체들[衆國]의 존재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 정치체들은 내부의 사회·경제적 복합화, 그리고 고조선의 멸망과 한(漢) 군현의 설치라고 하는 정치적 파동에 영향을 받아 상호 통합, 발전하였으며 이후 삼한(三韓)을 구성하는 제국(諸國)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백제국(百濟國), 사로국(斯盧國) 등 일부 ‘국’은 주변의 단위 정치체들을 통합하며 고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지역 정치체 대부분은 고대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 ‘국’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발전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헌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통합을 유지하고 그 통합을 대표하는 개인이 존재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⁸ 이 통합을 유지, 대표하는 개인이 바로 ‘수장’이며, 사료에서는 ‘장수’(長帥), ‘주수’(主帥), ‘거수’(渠帥) 등으로 표현되었다.

초기철기시대의 ‘국’과 삼한의 ‘국’ 간에는 계기적인 연속성과 함께, 규모와 내부 위계 구조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자연스럽게 ‘국’의 통합을 대표하는 개인, 즉 수장과 수장 권력의 성격 역시 시기에 따라 달랐으며, 이러한 수장 성격의 변천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의 성격을 근거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정치체, 즉 초기 ‘국’의 수장은 종교 직능자로서 정치, 군사, 경제 등 세속적인 권한을 함께 행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수장 무덤

8 권오영(1996), 『三韓의「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3-34.

에 부장된 청동기류가 그 증거로 이해된다.⁹ 영산강유역권의 경우, 청동 거울과 각종 청동방울로 구성된 제의도구 세트가 수장급 무덤에 부장된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유적이 이 단계 수장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조사된 함평 상곡리 111-4번지 유적 석판묘에서 출토된 경형동기(鏡形銅器) 역시 제의에 사용되었던 의기이자 위세품으로 추정되어 수장의 성격을 시사한다.¹⁰

이후 이러한 ‘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장의 성격과 권력 행사 방식 역시 변화한다. 특히 수장이 지녔던 종교 직능자로서의 성격은 점차 멀어지고, 대외교섭이나 기술 등 경제적 권한, 세속화된 정치적 지위가 수장 권력의 핵심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 영산강유역권에서 이러한 변화의 출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나주 구기촌유적의 예를 들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토광묘 10기가 조사되었는데, 9호 토광묘는 검과두식, 우각형·삼각형 동기 등의 청동기류와 함께 철모, 철검, 철부 등 철제 무기류·농공구류를 부장하였다.¹² 철제 무기류를 소유한 구기촌 토광묘의 피장자를 통해, 개인 권력을 지향하고 군사적 상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격의 수장이 영산강유역권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이후 『삼국지』(三國志) 단계인 3세기 후엽경이 되면, ‘국’의 수장을 중심으로 국읍과 읍락이 하나의 단위 정치체를 형성하였음이 확인된다. ‘국’ 내 부적으로도 정치적 위계와 차등이 존재하여, 수장은 ‘신지’(臣智), ‘읍차’(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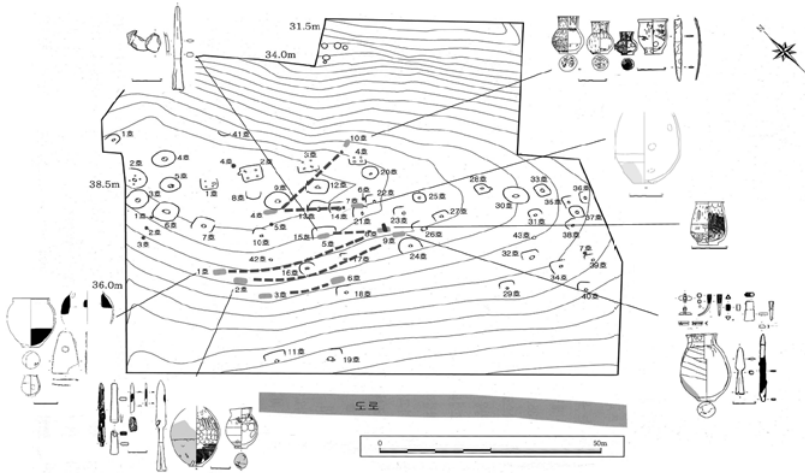
9 이현혜(2003), 「한국 初期鐵器時代의 政治體 首長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80, 역사학회, pp. 8-9.

10 吳江原(2017),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20, 한국청동기학회.

11 이희준(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영남고고학회; 이청규(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12 전남문화재연구원(2016), 『나주 구기촌·덕곡 유적』.

13 김진영(2021), 「나주 구기촌토광묘로 본 마한 수장」, 『馬韓·百濟文化』 3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출처: 김진영(2021), p. 42.

[그림 1] 나주 구기촌유적 토광묘 및 출토유물

借)’ 등으로 분화되었으며 ‘국’의 세력에 따라 ‘가우호’(加優呼)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이 당시 수장은 ‘읍락잡거’(邑落雜居)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 거주지가 별도로 조성되지 않고 일반 성원과 잡거하는 수준으로, 수장의 권력이 독보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정치체 간, 그리고 정치체 내부에서의 위계화와 성층화는 진전되었지만, 아직 초월적인 개인이 집단 전체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다른 성원들과 차별화하지는 못한 단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영산강유역권 각 지역에서 보이는 제형 분구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국이 성립하고 발전한 3세기 중·후엽에서 5세기 대까지 제형분이 발달하며, 개별 분구를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다장(多葬)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함평 만가촌고분군의 경우, 분구의 규모나 철기 부장 여부 등을 볼 때 고막원천 중상류지역에 존재하였던 계층화된 집단의

1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15 김영심(2022), p. 50.

무덤으로 추정된다.¹⁶ 만가촌고분군 피장자 중에서 수장으로 추정되는 탁월한 개인의 존재를 분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나주 용호고분군,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등에서도 확인된다.

수장의 개체성보다는 공동체성을 중시한 제형 분구묘 조영집단과 달리, 최근에는 우월한 개인 수장의 존재를 시사하는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해남 북일면에 조성된 독수리봉고분은 목곽(관) 1기를 매장시설로 갖는 방형분과 원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형분인 2호분에서는 환두대도 등 피장자의 위세를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목관에 딸린 매납유구에서는 4세기 대로 편년되는 장란형토기, 단경호, 가야계 토기의 부장이 확인되었다. 산정부에 위치하여 탁월한 입지에 조성된 점, 1인을 위한 단독묘라는 점에서 지역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¹⁷ 집단 구성원이 묘역을 공유한 제형 분구묘 축조집단과 달리, 개인을 위한 분구를 마련하여 매장하였다는 점에서 수장의 권력이 다른 성원들과 차별화되고, 이를 가지적으로 표현·기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분구와 매장의례를 공유하며 집단성을 강조한 세력과는 달리, 개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다른 성격의 수장이 북일면 일대를 지배하였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해남 독수리봉고분만의 돌출적인 현상인지, 새로운 유형의 수장을 설정할 실마리가 될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후 5~6세기 대에 해남 신월리, 방산리 장고봉고분 등 북일면 일대에 개인의 돌출을 강조하는 수장묘가 축조됨을 고려하면 독수리봉고분 피장자 역시 해남반도 일대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지어 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안 연안항로상에서 북일면 일대가 갖는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이 일대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빠르고 용이하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

16 김낙중(2011), p. 58.

17 마한문화연구원(2025),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 pp. 95-96.

각된다.

3. 5~6세기 영산강유역권 수장의 성격

3.1. 5세기 대 이후 영산강유역권 수장묘의 양상

5세기 후엽부터 영산강유역권 각지에서는 고대한 분구를 갖춘 고총(高塚)이 축조된다. 이는 지역 정치체 내부에서 분구 축조와 의례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유력자, 즉 수장 권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수장이 이끄는 집단이 주변 정치체나 백제 중앙과는 구별되는 단위 정치체로서의 자율성, 독자성을 영위한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영산강 중·하류의 나주 반남면, 영암 시종면 일대를 중심으로 대형 옹관고분이 축조된다. U자형의 대형 전용 옹관을 매장시설로 사용하고, 방대형과 원대형의 높은 분구를 갖춘 이 고분들은 일찍부터 지역 지배층의 무덤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흥미로운 점은 근초고왕의 마한 경략이라는 통설이 수용되었던 초기 연구에서는 4세기 후엽 백제로의 병합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도 옹관고분과 같은 문화적 독자성이 온존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성낙준은 옹관고분은 영산강유역이 백제에 편입되기 전 존재했던 마한 소국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근초고왕대 이후에도 백제가 지방 토착세력 집단의 실력과 지배력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옹관 문화 역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¹⁸

옹관고분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은 나주 반남고분군 지역이다. 6세기 전엽까지 옹관고분이 조영된 반남고분군은 신촌리고분군, 대안리고분군,

18 成洛俊(1983), pp. 76-82.

덕산리고분군의 세 군집으로 나뉘며, 신촌리고분군과 덕산리고분군은 다시 각각 2개의 군집으로 세분된다. 각 군집에는 여러 기의 대형 옹관을 매장 시설로 하는 방대형, 원대형 고분이 수 기에서 십여 기까지 축조되었다. 본구의 규모와 고분의 밀집도 측면에서 영산강유역권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영산강유역권의 중핵(中核) 세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중핵 세력을 구성하는 집단 사이에서 신촌리 9호분을 정점으로 한 계층성이 확인되지만, 이 지역, 집단 전체를 압도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진 개인 수장의 존재는 포착하기 어렵다.¹⁹ 또한, 반남고분군 축조집단을 이끈 수장의 권력은 개인의 혈연적 관계를 통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남고분군 내 각 군집으로 대표되는 유력 가계 사이에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이런 현상들을 종합할 때, 반남고분군을 조영한 사회의 수장은 고대국가의 왕과 비교했을 때 돌출적인 개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집단성에 기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삼포강이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하류역의 영암 시종 일대에도 만수리고분군, 신연리 9호분 등 옹관고분이 나타난다. 영암 시종 일대는 U자형의 전용 옹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역으로, 이후 내동리 일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옹관고분이 축조된다.²¹ 전용 옹관을 묘제로 공유하지만 고분의 집중도나 지속성, 규모와 부장품 측면에서 반남 일대보다는 열세인 양상이다.

옹관 고분을 조영한 영산강 중·하류 삼포강유역과 달리, 그 주변 지역에서는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가진 고분이 조영된다. 고창 봉덕리고분군은 현재 4기의 고분이 남아 있는데, 최근 조사된 3호분에서는 3세기 대로 소급되는 선형분구 위에 5세기 전반 이후의 후행분구를 확장한 양상이 확

19 김낙중(2009), pp. 310-317.

20 이정호(2019), 「영산강유역 고분으로 본 수장세력」,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의 여명과 성장』, 학연문화사, pp. 91-94.

21 김낙중(2009), pp. 142-146.

인되었다.²² 봉덕리고분군 일대가 현지 수장세력의 전통적인 매장지로 장기간 사용되어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봉덕리 1호분은 분구 성토와 동시에 5호 횡혈식석실을 최초 매장시설로 축조하였고, 이후 분구를 확장하며 4기의 석실을 추가 조성하였다.²³ 5호 석실과 4호 석실에서는 백제 중앙 양식의 금동식리(金銅飾履)가 부장되어 봉덕리고분군의 수장 세력과 백제 중앙이 위세품을 매개로 한 정치적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분구에 복수의 금동식리가 부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봉덕리 일대를 대표하는 수장 권력, 그리고 백제 중앙과의 정치적 관계는 봉덕리 1호분에 매장된 특정 가계를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산강유역권의 수장층은 5세기 후엽 이후 본격적으로 백제의 위세품 사여체제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높은 위계의 위세품이라 할 수 있는 금동관, 금동식리, 장식대도가 출토된 고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중 화성 요리, 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한성기의 금동관, 금동관모가 부장된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이 가장 이른 자료로, 5세기 2/4분기 경으로 추정된다.²⁴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 출토 금동식리 역시 한성기 백제 금동식리의 제작·시문기법과 문양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475년 한성 함락 이전에 제작되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이는 한성기 후반 고창 봉덕리, 나주 북암리 일대의 수장 세력이 백제 중앙과 밀접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성기 후반 고구려와의 대결에 집중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남방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던 백제 중앙의 의도, 그

22 문화유산마을(2024),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1차 서사면 발굴조사』.

23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24 오동선(2022), 「영산강유역권 백제 금속위세품의 변천과 토착세력의 동향」, 『湖南考古學報』 72, 호남고고학회, pp. 17-18.

25 이문형(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중앙문화재단연구원, pp. 82-83; 김낙중(2021), 「영산강유역권 마한 관련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와 의의」, 『湖南考古學報』 67, 호남고고학회, p. 158.

[표 1] 영산강유역권의 금동관·금동식리·장식대도 출토 고분

	유적(유구) 명 ²⁶	분형	매장 주체부	금공제 위세품 부장 여부			주요 공반 유물
				금동관	금동 식리	장식 대도	
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원대형	수혈식 석곽	○	○		금동제 이식, 동경, 환두도, 갑주, 살포 등
2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방대형	옹관	○	○	○	이식, 은제 팔찌, 도자, 철 창, 철촉, 구슬류 등
3	함평 예덕리 신덕 1호분	전방 후원형	횡혈식 석실	○	○	○	금제 이식, 갑주, 철모, 철 준, 철촉, 성시구, 구슬류 등
4	영암 내동리 쌍무덤 1호분 2호 석곽	방대형	수혈식 석곽	○			금제 이식, 대도, 철촉, 구 슬류 등
5	고창 봉덕리 1호분 5호 석실	방대형	횡혈식 석실		○		금제 이식, 대금구, 성시구, 구슬류 등
6	고창 봉덕리 1호분 4호 석실	방대형	수혈식 석곽		○	○	금제 이식, 은제 관장식, 철검, 도자, 성시구, 마구 류, 청자반구호, 청동탁잔, 구슬류 등
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	방대형	횡혈식 석실		○	○	금·은·금동제 이식, 목병 도, 성시구, 철모, 철준, 철 촉, 마구류, 구슬류
8	나주 복암리 3호분 '96석실	방대형	횡혈식 석실		○	○	대도, 도자, 철모, 철촉, 마 구류, 철제 집게, 칠기, 구 슬류 등

26 위세품 출토 유적(유구)과 그 공반 유물은 가장 바깥의 매장주체시설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횡혈식석실에 추가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공제 위세품과 공반 유물 조합이 한 명의 피장자가 소유한 것이거나, 동일 인물의 장례와 관련된 유물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세품과 공반 유물의 조합을 통하여, 하나의 석실 안에 안치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 즉 수장집단 또는 수장층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표 1] 영산강유역권의 금동관·금동식리·장식대도 출토 고분(계속)

	유적(유구) 명 ²⁶	분형	매장 주체부	금공제 위세품 부장 여부			주요 공반 유물
				금동관	금동 식리	장식 대도	
9	나주 북암리 3호분 5호 석실	방대형	황혈식 석실			○	은제 관식, 관모틀, 금동제 이식, 은제 과대교구, 도자, 구슬류 등
10	나주 북암리 3호분 7호 석실	방대형	황혈식 석실			○	금관관모장식, 관모틀, 금 동제 이식, 청동제 과대교 구와 대금구, 도자

리고 백제 왕권과의 관계를 통해 지역 지배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던 현 지 수장 세력의 의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⁷

3.2. 475년 한성 상실 이후 백제의 동향에 대한 해석

영산강유역권 수장의 존재 양태와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논의할 때 주요한 획기로 여겨지는 사건은 475년 고구려의 남진에 의한 백제의 한성 상실과 웅진 천도이다. 5세기 후엽, 특히 5세기 4/4분기~6세기 1/4분기를 중심으로 영산강의 주요 지류인 삼포강유역에서는 전용 옹관고분의 축조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주변 지역에는 다양한 계통의 대형 고분과 위세품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고고학적 양상이 이 시점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475년 한성 함락 이후 백제의 지방지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한성 함락 이후 백제의 남방, 특히 영산강유역권에 대한 지배력

27 최영은(2023),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과 그 추이」, 『百濟學報』 44, 백제학회, pp. 65-66.

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²⁸ 왕도 한성의 상실, 국왕과 왕족들의 죽음, 갑작스러운 천도로 인한 혼란 속에서 백제가 영산강유역권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백제의 일시적 멸망, 혹은 힘의 진공 상태에서 영산강유역권의 중소 수장들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였다고 이해한다. 웅진기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왜, 가야 등 다양한 계통의 고고 자료는 당시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웅진 천도 이후 백제가 영산강유역권으로의 진출과 영유화에 더욱 집중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⁹ 중앙의 핵심기반이었던 한강유역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 안정적인 수취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던 영산강유역권 수장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영역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영산강유역권에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는 세력이 존재하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백제 중앙이 자신들의 필요성에 맞추어 그들을 통제하고, 때로는 지역 사회 내부의 관계나 지배구조를 재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75년 백제가 궤멸적 타격을 입었으며, 상당한 토지와 인민을 상실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리고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대까지는 왕권의 불안정과 귀족 세력의 전횡이 있었지만, 무령왕대 재위 후반이 되면 백제의 국력이나 체제가 ‘갱위강국’(更爲強國)으로 표현될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음은 사료에 나타난 사실이다. 50여 년에 가까운 시기 동안 백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고 다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지, 그 추이를 어떻

28 최성락(2004),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에 대한 재고」, 『韓國上古史學報』 44, 한국상고사학회, pp. 101-102; 김나중(2009), pp. 330-331; 姜鍾元(2012),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百濟研究』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p. 12-13; 이도학(2013), 「樂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122-124.

29 김영심(2003), 「웅진·사비시기 百濟의 領域」, 『古代 東亞細亞와 百濟』, 서경, pp. 111-112; 정재윤(2011), 「백제의 웅진도읍기 연구현황과 과제」, 『百濟文化』 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43.

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산강유역권 수장과의 관계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 내부 정정(政情)의 혼란이나 왕위 계승의 불안정을 곧바로 지방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치환하는 것에는 주의가 요구된다.³⁰ 특히 5세기 말 중앙의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에도 각종 국가 차원의 축성과 역역 징발, 민호의 사민, 관료의 지방 파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지방제도와 제민지배의 시행에 대한 백제 중앙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³¹

국가 권력이나 중앙의 지배력은 국왕권, 귀족세력, 지배체제(시스템) 등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왕과 중앙 귀족세력이 국정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원활한 지방지배라는 목표는 공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백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역시 보다 중층적인 구도를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왕과 귀족,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관계가 아닌 권력을 쥐고 있는 주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교차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제본기에는 동성왕 대까지 여러 귀족세력의 전횡과 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구(解仇), 연신(燕信), 백가(昔加) 등이다. 478년 좌평 해구와 은술 연신이 대두성(大豆城)을 거점으로 모반하였을 때 좌평 진남(眞男), 덕솔 진로(眞老) 등 진씨들이 이를 진압하였고,³² 501년 좌평 백가가 동성왕을 죽이고 가림성(加林城)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한솔 해명(解明)이 이를 토벌하였다.³³ 이는 웅진기 중앙 정국을 구성하였던 귀족세력 내에서

30 최영은(2023), pp. 73-74.

31 홍승우(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학회』 59, 한국고대사학회, pp. 240-241.

32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三斤王, “二年,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 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 以兵二千討之, 不克. 更命德率眞老, 帥精兵五百, 擊殺解仇. 燕信奔高句麗, 収其妻子, 斬於熊建市.”

33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武寧王, “春正月, 佐平昔加據加林城叛, 王帥兵馬至牛頭城,

도 여러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교차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권력 구도의 복잡성이 영산강유역권 각지의 수장 세력 내부에도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까?

영산강유역권의 수장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각기 다르게 맺어나갔을 것이다. 중앙이 혼란한 틈을 타 영향력에서부터 이탈하고 독자적인 세력화를 추구하는 주장도 있었을 것이며, 그에 동조하지 않고 백제 중앙에 협력하는 선택을 하는 주장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5세기 4/4분기~6세기 1/4분기 영산강유역권 각지에 대형 고분이 축조되고 금공제 위세품이 확인되는 것은 영산강유역권 주장들이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나 구심점을 형성하지 않고, 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규모와 성격, 정치적 입장을 가진 채 병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 백제 중앙에서 제작된 위세품의 분포 범위가 영산강 중·하류의 웅관고분 세력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乙棺) 출토 금동관은 백제 권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관(帶冠)이 사용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제작지 혹은 제작 주체를 백제 중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한성 함락으로 인한 백제 중앙의 영향력 약화에 따라 현지의 공방에서 백제 양식을 모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한 물품이라는 자체 제작설을 중심으로,³⁴ 안쪽의 모관(帽冠)은 백제로부터의 사여품이지만 대관은 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견해,³⁵ 대

命扞率解明討之。昔加出降，王斬之，投於白江。”

- 34 이종선(1999), 「羅州 潘南面 金銅冠의 성격과 背景」, 『羅州地域 古代社會의 性格』, 나주 시·목포대학교박물관, p. 80; 이한상(2009), pp. 189-190;姜元杓(2011), 「百濟 金銅冠 製作과 賜與에 對한 一考察」, 『百濟의 冠 - 논고』, 국립공주박물관, pp. 65-68; 이진우(2019), 「제작기법을 통해서 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계통」,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 국립나주박물관, p. 147; 李凱起(2019), 「고분 출토 金銅冠과 飾履로 살펴본 馬韓·百濟·日本과의 비교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22(1), 역사문화학회, pp. 82-83.
- 35 최성락(2014),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 II: 고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역사문화학회, pp. 25-27.

관과 모관 모두 백제에 의해 사여된 것이 아닌 현지에서 주문 혹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본 견해³⁶ 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신촌리 9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와 문양을 갖는 금동관 입식 편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금동관이 백제권역 중에서는 나주와 영암에서만 출토된다는 점에서 자체 제작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는 입장이 있는 한편,³⁷ 오히려 웅진기 백제 중앙에서 제작한 새로운 양식의 금동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³⁸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과 내동리 쌍무덤 출토 금동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유리구슬 장식의 계보에 주목한다면,³⁹ 금동관의 제작과 배포에서 백제의 역할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웅진기 초기 백제 왕실에서 제작한 장식대도가 나주 신촌리, 복암리 등 영산강유역권 및 대가야권에 배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⁴⁰ 새로운 형태의 금동관을 제작하여 나주 신촌리, 영암 내동리 등 유력 세력에게 사여했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금동관 입식편이 발견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 2호 석곽은 선행하는 장방형 평면의 횡혈식석실인 1호 석실 위에 축조되었다. 1호 석실에서는 청자 잔이 출토되었는데, 공주 수촌리 II-4호 석실에서 출토된 것과 기형과 제작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⁴¹ 중국제 도자의 입수는 영암 내동리의 수

36 임영진(2020), 「삼국시대 영산강유역권 금동 위세품의 역사적 성격」, 『百濟學報』 31, 백제학회, pp. 70-71.

37 이범기(2021), 「영암일대 방대형분의 축조배경과 대외교류: 내동리 쌍무덤을 중심으로」,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전남문화재단연구소, pp. 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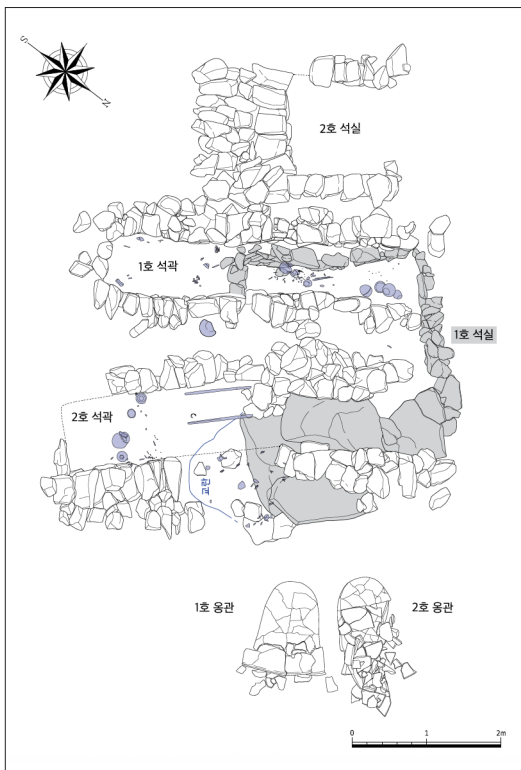
38 김낙중(2021), pp. 159-160; 최영주(2022), 「전남지역 위세품 부장 고분의 성격」, 『湖南考古學報』 67, 호남고고학회, pp. 91-92.

39 오동선(2022), pp. 25-26.

40 김낙중(2014), 「가야계 환두대도와 백제」,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 253-254.

41 전남문화재단연구소(2025), 『영암 내동리 쌍무덤』, pp. 369-370.

장세력이 백제 중앙과 위세품을 매개로 한 정치적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한성기부터 백제 중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금강유역 일대의 유력한 현지 수장세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한성기부터 내동리 쌍무덤 피장자가 백제 중앙, 혹은 백제의 주요 거점 세력과 관계를 맺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웅진 천도 이후까지 유지된 결과가 2호 석곽에 부장된 금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 유구배치도



출토유물

- 상: 1호 석실 출토 청자간
- 중: 2호 석곽 출토 금동관
- 하: 1호 석곽 출토 자라병

출처: 전남문화재연구소(2025)

[그림 2] 영암 내동리 쌍무덤 유구 및 출토유물

1호 석실에 후행하여 조영된 1호, 2호 석곽은 세장방형의 평면형태 등 가야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자라병, 스에키(須惠器), 형상 하나와(埴輪) 등 왜계 문물과 장례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한성기에 형성되었던 내동리 세력의 대외교섭 대상이 웅진기에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웅진기 백제가 서남해안 연안항로를 통해 가야권이나 일본열도와 교섭하며 활로를 모색하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백제 중앙과 관계를 맺었던 항로상의 수장세력이 수행했을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웅진기 새로운 형태의 금동관을 사여받은 주체가 묻혀 있는 내동리 쌍무덤과 신촌리 9호분은 토착묘제인 전용 옹관의 지속적 사용 여부에 있어서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내동리 쌍무덤 피장자가 황혈식석실, 석곽 등 새로운 묘제를 받아들인 반면, 신촌리고분군에서는 9호분을 중심으로 전용 옹관의 사용이 계속된다. 이로 인해 영암 시종면 일대의 세력이 새로운 석축 묘제를 받아들이며 정치적 지향을 일신할 때, 여기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반남고분군을 조영했을 가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² 이러한 양상은 백제가 475년 이후 영산강유역권 수장을 포섭할 때 현지 세력이 다양한 방식과 태도로 대응하였음을 시사한다. 신촌리 일대의 세력은 분묘와 장송의례를 공유하며 자신들의 집단성을 강조하고 현지 토착 수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면, 내동리 쌍무덤의 피장자들은 백제를 포함한 외부 문물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웅진기 이후 백제와 일본열도의 왜(倭)를 양 축으로 하는 국제관계에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양상은 전방후원형 고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방후원형 고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지(제지) 수장, 왜인, 왜계 백제관료 등으로 보는 주장들이 나와 있다. 그중 피장자를 현지의 수장으로 보는 견해들은 각 지역의 수장층이 정치적, 대외적인 필요성에 따라

42 오동선(2022), pp. 24-25.

왜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상하기 위해 전방후원형 고분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정치적, 대외적 필요성이란 주로 웅진기 백제의 영산강유역권 영유화에 대한 저항,⁴³ 백제의 일시적인 멸망 상태에서 군소 현지 주장들의 정치세력화⁴⁴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전방후원형 고분에도 백제와의 정치적 관계가 개재된 위세품이나 장송의례 용품이 부장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주장 세력의 정치적 지향을 완전히 백제와 구분하여 보거나 반(反)백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함평 신덕 1호분에서는 백제 중앙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목관을 장구(葬具)로 사용하였으며, 피장자의 신체를 장식한 착장형 장신구나 유해의 매장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백제 중앙의 특징이 감지되어, 현지 주장의 정치적 지향점이 백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⁵

4. 백제의 지역사회 재편과 주장의 성격 변화

6세기 전엽까지의 영산강유역권 지역 주장과 백제 중앙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이후, 즉 사비기가 되면 이 지역 역시 백제의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일원적인 지방통치체제 안에 편입된다는 사실 자체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독자성의 지표로 여겨지던 고총 고분 축조와 대형 옹관 사용이 점차 중단되고, 금공제 위세품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렇다면 현지에 오랜 시간 기반을 두고, 때로는 자체적인 위세품 제작과 사

43 田中俊明(2000), 「榮山江流域에서의 前方後圓形古墳의 성격: 造墓集團의 性格을 中心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3(1), 역사문화학회, p. 289.

44 김낙중(2009), pp. 330-331.

45 최영은(2025), 「함평 신덕 1호분의 매장 프로세스와 장송의례」, 『한국문화』 11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옹이 상정될 만큼 강한 독자성과 정치력·경제력을 유지하였던 영산강유역권의 수장 세력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 지방사회로 편입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탐라국 관련 사료는 백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현지 수장에 대한 포섭을 시도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웅진 천도 직후인 476년, 탐라국에서 방물을 바치자 문주왕이 기뻐하며 그 방물을 가지고 온 사자(使者)를 은솔(恩率)로 삼았다는 내용이다.⁴⁶ 탐라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보는 설과 강진, 해남 일대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지만,⁴⁷ 여기에서는 탐라의 구체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그 사신에게 은솔의 관등을 수여한 것에 초점을 두고 현지 수장의 통치체제 내 포섭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의 탐라국은 ‘국’(國)을 칭하고 별도의 사자가 상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백제의 지방으로 편입되지 않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신에게 제 3관등에 해당하는 은솔을 수여하였다는 점에서, 현지의 유력 세력을 관등제라는 중앙의 통치체제와 위계질서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은솔이라는 관등은 476년에 바친 방물의 대가이자, 백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공납과 지배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기도 했다. 20여 년 뒤, 동성왕은 탐라가 공부(貢賦)를 바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친정을 시도하는데,⁴⁸ 이는 공부를 둘러싼 백제와 현지 세력의 입장이 달라지자 물리력을 통해 그 의무를 수행하게 한 사례이다. 5세기 탐라의 동향과 관련된 두 기록은, 백제 중앙이 제도적, 물리적 장치를 동원하여 현지 세력을 포섭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46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 2年,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拜使者爲恩率.”

47 장창은(2018),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耽羅文化』 5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pp. 101-103.

48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20年,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即耽牟羅】.”

이처럼 탐라 사신에게 은술을 수여한 사례는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중앙이 아닌 지방에 기반을 둔 유력 수장세력이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백제의 중앙 정치체제 안에 포함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백제의 관제에서 6품인 나솔(奈率)부터 은화(銀花)로 관을 장식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현지의 수장세력이 은제 관식을 소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다.⁴⁹ 실제로 은제 관식은 사비기의 왕도였던 부여 외에도 나주, 남원, 논산 등 지방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런데 최근 은제 관식의 시원적인 형태로 보이는 유물들이 6세기 전엽의 나주 송제리 1호분, 해남 만의총 1호분 등 지방 무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⁵⁰ 이는 은제 관식의 사용과 지방 현지 수장세력이 이를 수여받았을 시기를 웅진기로 소급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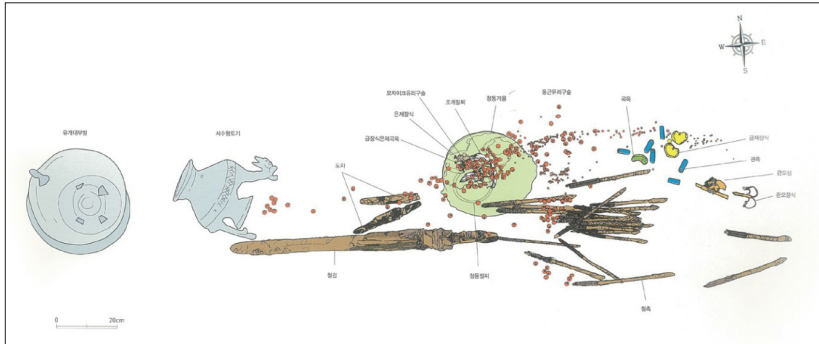
최근 재조사된 나주 송제리 1호분은 만봉천 유역의 구릉 사면에 군집한 원분 4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고분이다. 매장시설은 지상식의 횡혈식 석실로, 석실 내부에서 은제 관식, 은제 과판과 과대금구, 금동제 이식, 청동잔, 장식소도, 마구류, 호박구슬 등의 부장품과 은으로 관머리를 씌운 장식관못 등의 목관부속구가 출토되었다. 은제 관식은 나무줄기 모양의 은판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접었으며, 끝은 풀잎처럼 뾰족하게 마무리한 형태이다. 공반하는 청동잔, 호박구슬, 대금구, 장식관못 등은 무령왕릉 출토품과 비교되어 그 연대는 6세기 2/4분기로 이해된다.⁵¹ 은제 관식은 형태와 용도상 사비기 은제 관식과 유사성이 보이며, 그 초기 형식 혹은 한성·웅진기 금동관에서 사비기 은제 관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관식으로 해석된 바 있다.⁵²

49 서정석(2009), 「銀花冠飾으로 본 백제의 지방통치」, 『東國史學』 47, 동국대학교 동국사학연구소, pp. 176-177.

50 김낙중(2021), pp. 162-163.

51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23), 『羅州 松堤里 古墳群 발굴조사 보고서』.

52 오동선(2020), 「나주 송제리고분의 모자 장식」, 『2017~2019 호남고고학 성과전: 울림 풀



해남 만의총 1호분 석곽 유물 배치도



은제 관모 장식과 관모 심

출처: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14)

[그림 3] 해남 만의총 1호분 은제 관식

해남 만의총 1호분은 해남반도의 북동쪽, 옥천천 일대에 위치한다. 높이 3m 이상의 원형 분구를 성토하고, 그 중앙에 석곽을 시설하고 목관을 안치하였다. 석곽 내외부에서 심엽형 금제장식, 동제 팔찌, 동경, 철검, 금모(金帽) 은제 곡옥, 서수형 토기, 유개대부발 등 다양한 유물과 함께 풀잎 형태의 은제 관모장식과 관모 심이 출토되었다. 석곽 내부 피장자의 두부(頭部)에서 출토된 관모 장식은 얇은 장방형 은판을 겹쳐 접은 뒤, 양 끝을 구부려 앞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관모 심과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 장식과 관모 심에 모두 식물흔이 관찰되어, 식물로 만든 관모에 꽃거나 부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³ 석곽의 연대는 동천 등 장신구의 형식이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조금 선행한다는 점에서 6세기 전엽경으로 추정된 바

림 알립』, 국립나주박물관, p. 111.

53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있다.⁵⁴

이처럼 시원형(始原形)의 은제 관식이 출토된 송제리 1호분과 만의총 1호분은 무령왕대 이후 백제의 지방 지배와 현지 수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작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고분은 사비기의 정형화된 꽃봉오리 모양의 은제 관식 이전의 형식이 존재하고,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조금 이른 유물과 공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는 은제 관식의 성립, 사용 시점을 무령왕대로 올려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은제 관식은 대부분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대의 사비기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은화’ 규정을 비롯한 백제의 의관제 역시 늦어도 6세기 중엽경에는 완성되어 시행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⁵⁵ 나주와 해남에서 발견된 두 점의 시원적 은제 관식은 은화 관련 규정과 의관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암시하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송제리 1호분과 만의총 1호분은 대형 분구를 갖추고 있고, 매장시설을 지상식으로 설치하는 현지의 전통적인 고분 축조 방식을 따르고 있다. 거대한 고분을 축조하고, 피장자의 정치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부장품들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현지 수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피장자들은 현지에 기반을 둔 수장이면서, 백제로부터 은제 관식을 받으며 관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두 고분의 시·공간적 위치와 묘제, 부장유물의 차이를 통해 수장의 성격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에서 양자 간 차이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송제리고분군은 전용 옹관을 사용한 옹관고분의 축조가 확인되지 않는 만봉천유역에 축조되며, 이 지역의 고분 입지 전통과 달리 구릉 사면을 선택하였다. 만의총 1호분 역시 해남반도 내에서 5~6세기대 대형 고분이 집중적

54 이한상(2014), 「海南 萬義塚 1號墳 裝身具의 검토」, 『해남 만의총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pp. 206-208.

55 김영심(2009),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衣冠制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학회, pp. 108-109.

으로 조영되는 북일면 일대에서 다소 벗어난 지점에 축조되었다.⁵⁶ 이는 두 고분의 피장자와 축조집단이 현지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사후 현지에 매장된 수장이지만, 각 지역 내 중심적인 수장세력과는 구별되는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웅진기 후반의 백제 중앙이 나주, 해남 등 각 지역공동체에서 주변적 위치의 수장들을 관등체계 안에 포섭하면서 지배를 모색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암 시종, 나주 반남 등 중심 세력의 수장이 금동관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들은 백제 왕을 일원적인 정점으로 하는 정치질서 내로 편입된 것이며, 점차 수장으로서의 성격을 탈각하고 지방 관료로서의 전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관인화, 관료화의 양상은 나주 북암리 3호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암리 3호분의 분기 중 II기에 해당하는 6세기 중엽부터, 기존의 방대형 분구에 횡혈식석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데 점점 백제 중앙식의 판석조 석실로 이행한다. 층서 및 중복 관계를 통해 현실 단면이 제형에서 방형으로, 축조 석재는 활석에서 판석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비기 석실 중 5호, 16호 석실에서 은제 관식이 출토되었다.⁵⁷

북암리 3호분에서 출토된 은제 관식은 현지 세력의 묘역을 계승하는 고분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그 소유자를 지방관으로 보는 견해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료이다. 이에 은제 관식을 소유한 인물이 현지적 기반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인정되며, 혹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하부조직 안에 편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⁵⁸ 즉 현지의 전통적인 유력 수장층을 백제 관등체계 내에 편입시켜 지방지배에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암리 유적에서 두힐(豆飭)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정과 지

56 이정호(2014),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만의총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pp. 118-119.

57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58 이병호(1999), 「사비시대의 지방통치」, 『백제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p. 165; 박普鉉(1999), 「銀製冠飾으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에 대한 몇 가지 問題」, 『科技考古研究』 5, 아주대학교 박물관, pp. 19-22.

방 통치과 관련된 목간이 출토되어, 이 일대가 백제 군현의 치소(治所)로서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었다.⁵⁹ 이러한 지방 군현의 치소에서 이루어진 행정, 통치 행위에는 현지 수장 및 그 후예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암리의 사례를 통해, 사비기 백제 지방지배 방식이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은 물론 관인화한 현지 수장층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규명된 것이다.

북암리 3호분 외에도,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분포 양상과 변천 과정을 통해 현지 수장세력과 중앙 파견 지방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왕도 사비에서 사용된 소위 ‘능산리 규격’에 가까운 횡혈식석실이 분포하는 신안 도서지역, 함평, 장성, 장흥 등 지역색이 열린 지역에는 중앙 관료를 직접 파견한 반면, 나주 북암리 일대처럼 옹관 고분의 중심지였던 곳은 토착세력을 지방 관료로 편입하여 활용하였던 것으로 해석한 견해이다.⁶⁰ 토착세력의 강약과 지역색의 농도에 따라, 영산강유역권 내에서도 지방관 파견 방식이 달랐으며 백제 지방지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군현의 설치와 지방관의 파견을 지방통치체제 완비로 이해하고, ‘지방관 파견=직접지배’, ‘수장층 활용=간접지배’라는 도식을 설정해 온 기존 견해에 재검토를 요구한다. 기존 이해에서는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이행함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면, 기존에 지역을 다스리던 수장의 권력은 쇠퇴, 해체되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나주 북암리 3호분의 사례와 같이 현지의 유력 수장, 혹은 그 후예들을 관등제라고 하는 백제의 일원적인 질서 내에 편입시켜 지방지배에 활용할 수 있었다면, 수장층은 군현제 실시에 의해 일시에 쇠퇴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성격과 역할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관의 파견이 곧 수장층의 지배권 해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초기에는 파견된 지방관과 수

5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0), 『羅州 伏岩里 遺蹟 I』.

60 오동선(2019),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변천과 의미」, 『韓國考古學報』 112, 한국고고학회, pp. 230-231. .

장층이 협력을 통해 지방을 지배했다는 것이다.⁶¹ 이러한 점에서 지방관의 파견에 따른 수장의 성격, 역할 변화는 소멸과 해체라는 관점보다는 지방통치에서의 ‘참여와 미참여’, ‘포섭과 배제’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비기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이 큰 틀에서는 균형을 통한 일원적인 통치를 지향하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며 지방관의 구성과 임명 원리를 달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복암리 세력처럼 토착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 수장세력을 강제적으로 와해시키는 방식이 아닌, 그들을 통치체제 내에 편입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구사하기도 했음을 시사한다. 사비기 지방통치 체제의 완비는 그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현지 세력과의 관계 조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역 수장과 그 후예들을 백제의 통치질서 내로 포섭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송제리 1호분과 만의총 1호분의 사례가 다양한 지역의 군소 수장들에 대한 제도적 편입의 가능성을 뜻한다는 점에서, 백제의 영산강유역권 지배과정에서 현지 수장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대 영산강유역권 사회를 바라볼 때, 백제화의 진전을 마한의 소멸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해 온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영산강유역권 정치체의 내부 구조와 정치체별 존재 양태를 보다 다층적으로 밝혀내기 위하여, 수장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수장은 광역의 공동체를 대표하면서도 그 내부 성원과 자신을 구별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영산강

61 홍승우(2009), pp. 228-229.

유역권에는 수장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고분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검토하여 영산강유역권 수장의 존재 양태와 성격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백제 지방지배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산강유역권에서 수장 세력의 성장은 문헌사료에 ‘국’(國)이 보이는 초기철기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철기를 부장하는 토광묘에서 그 존재가 감지된다. 이후 마한의 각 국 단계를 거쳐 수장 세력의 등장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수장은 돌출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읍락과 ‘잡거’(雜居)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목관이나 옹관을 다장하는 제형 분구묘는 수장의 개인성보다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5세기 대 이후 전용 옹관을 사용한 고분에까지 이어진다. 이와 달리 해남 독수리봉고분에서는 수장 개인을 위한 단독묘가 4세기경 출현하는데 이는 서남해안 연안항로 상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5세기대 이후 영산강유역권 수장 세력은 고대국가로 성장한 백제 중앙과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영산강유역권은 5세기 중엽 이후 지역별 시차를 두고 백제의 위세품 사여체제로 포섭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475년 백제가 한성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뒤, 백제 중앙과 지역 수장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나주 신촌리 9호분,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웅진기 이후에도 백제 중앙이 영산강유역권 세력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지의 수장 세력은 자신들의 지향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백제 중앙과의 관계를 전개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제의 경우, 현지 수장 세력을 중앙의 관동체계안에 포섭, 편입시키며 그들을 현지 지배에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그 증거가 문헌과 고고자료에서 확인된다.

지방지배가 완비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비기 이후에도 북암리 일대에서는 현지 수장 및 그 후예들을 활용한 지방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백제 지방지배의 진전을 현지 수장의 소멸과 해체로 보아 온 기존 관점과 달리, 현지 수장의 역할 변화 및 그들의 포섭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지방지배와 수장을 이해하는 관점을 재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출발한 글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분 자료가 반영된 양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영산강유역권 전체로 시야를 넓혀 지방의 수장이 지방지배에 포섭, 활용, 혹은 배제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문헌사료

『三國志』, 『三國史記』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23), 『羅州 松堤里 古墳群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0), 『羅州 伏岩里 遺蹟 I』.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마한문화연구원(2025), 『해남 방산리 독수리봉고분』.
 문화유산마을(2024), 『고창 봉덕리 고분군 3호분 1차 서사면 발굴조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2016), 『高敞 鳳德里 1號墳 종합보고서』.
 전남문화재연구원(2016), 『나주 구기촌·덕곡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소(2025), 『영암 내동리 쌍무덤』.
 한성백제박물관(2015), 『백제 王의 선물, 사여품』, 2015년 특별전시회 도록.

단행본

김낙중(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이한상(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티모시 K, 열, 김범철 역(2024), 『수장, 수장사회: 복합사회 고고학 입문』, 진인진.

논문

姜元杓(2011), 「百濟 金銅冠 製作과 賜與에 대한 一考察」, 『百濟의 冠 - 논고』, 국립공주

박물관.

- 姜鍾元(2012), 「백제 국가권력의 확산과 지방」, 『百濟研究』 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권오영(1996), 『三韓의「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낙중(2011)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成長과 變動 過程」, 『百濟學報』 6, 백제학회.
- 김낙중(2014), 「가야계 환두대도와 백제」,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낙중(2021), 「영산강유역권 마한 관련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와 의의」, 『湖南考古學報』 67, 호남고고학회.
- 金承玉(2014),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百濟學報』 11, 백제학회.
- 김영심(2009),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衣冠制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학회.
- 김영심(2022),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격과 지배구조」, 『百濟學報』 41, 백제학회.
- 김진영(2021), 「나주 구기촌토광묘로 본 마한 주장」, 『馬韓·百濟文化』 3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田中俊明(2000), 「榮山江流域에서의 前方後圓形古墳의 성격: 造墓集團의 性格을 中心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3(1), 역사문화학회.
- 朴普鉉(1999), 「銀製冠飾으로 본 百濟의 地方支配에 대한 몇 가지 問題」, 『科技考古研究』 5, 아주대학교 박물관.
- 서정석(2009), 「銀花冠飾으로 본 백제의 지방통치」, 『東國史學』 4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成洛俊(1983),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 『百濟文化』 1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吳江原(2017),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의 경형동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20, 한국청동기학회. .
- 오동선(2019), 「영산강유역권 사비기 석실의 변천과 의미」, 『韓國考古學報』 112, 한국고고학회.
- 오동선(2020), 「나주 송제리고분의 모자 장식」, 『2017~2019 호남고고학 성과전: 올림 풀림 알림』, 국립나주박물관.
- 오동선(2022), 「영산강유역권 백제 금속위세품의 변천과 토착세력의 동향」, 『湖南考古學報』 72, 호남고고학회.
- 이도학(2013), 「榮山江流域 馬韓諸國의 推移와 百濟」,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문형(2015), 「제작기법과 문양을 통해 본 백제 금동신발의 편년」, 『중앙고고연구』 18.
- 이문형(2020), 『高敞 鳳德里古墳群 築造勢力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飴起(2019), 「고분 출토 金銅冠과 飾履로 살펴본 馬韓·百濟·日本과의 비교 검토」, 『지방사와 지방문화』 22(1), 역사문화학회.
- 이범기(2021), 「영암일대 방대형분의 축조배경과 대의교류: 내동리 쌍무덤을 중심으로」, 『영암 내동리 쌍무덤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전남문화재연구소.
- 이병호(1999), 「사비시대의 지방통치」, 『백제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 이정호(2014),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만의총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이정호(2019), 「영산강유역 고분으로 본 수장세력」, 『영산강유역 마한사회의 여명과 성장』, 학연문화사.
- 이종선(1999), 「羅州 潘南面 金銅冠의 성격과 背景」, 『羅州地域 古代社會의 성격』, 나주시·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진우(2019), 「제작기법을 통해서 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계통」,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 국립나주박물관.
- 이창규(2019), 「수장의 개념과 변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제28회 영남고고학회 정기 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 이한상(2009),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 이한상(2014), 「海南 萬義塚 1號墳 裝身具의 검토」, 『해남 만의총 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이현혜(2003), 「한국 初期鐵器時代의 政治體 首長에 대한 고찰」, 『역사학보』 180, 역사학회.
- 이희준(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영남고고학회.
- 林永珍(1995), 「全南地域 石室墳의 受容背景과 變遷」, 『先史와 古代』 6, 한국고대학회.
- 임영진(2020), 「삼국시대 영산강유역권 금동 위세품의 역사적 성격」, 『百濟學報』 31, 백제학회.
- 임영진(2024), 「마한 소멸시기 문제 재론」, 『한국고대사연구』 116, 한국고대사학회.
- 장창은(2018), 「古代 耽羅國 연구의 쟁점과 이해방향」, 『耽羅文化』 5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崔夢龍(1987),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9,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최성락(2004),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에 대한 재고」, 『韓國上古史學報』 44, 한국상고사학회.
- 최성락(2014),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 II -고분을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역사문화학회.
- 최영은(2023), 「백제의 고창·영광지역 지배 과정과 그 추이」, 『百濟學報』 44, 백제학회.
- 최영은(2025), 「함평 신덕 1호분의 매장 프로세스와 장송의례」, 『한국문화』 111.
- 최영주(2022), 「전남지역 위세품 부장 고분의 성격」, 『湖南考古學報』 67, 호남고고학회.
- 홍승우(2009), 「百濟 律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 59, 한국고대사학회.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Nature of Local Chiefs in the Ancient Yeongsan River Basin Region

Choi, Young Eun*

The Yeongsan River Basin is a term referring to the Yeongsan River watershed and its surrounding areas, which share broadly similar material culture and are characterized by the construction of large jar coffins and monumental mound tombs. Existing scholarship in ancient Korean history and archaeology has produced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on the timing and processes through which Baekje integrated the polities of the Yeongsan River Basin, largely based on mortuary evidence. While these studies have yielded important new insights, they have also exposed significant limitations. Most notably, they rest on the uncritical assumption that the polities of the Yeongsan River Basin were incorporated into Baekje'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a uniform process, and they tend to overlook the agency and diversity of local leaders involved in this integration.

This study traces the growth of early polities and the emergence of chiefly authority in the Yeongsan River Basin from the Early Iron Age onward, adopting a chronological approach. During the Early Iron Age,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leaders were buried with various types of bronze ritual objects, whereas in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heir authority increasingly emphasized military symbolism. However, an examination of mound tombs with square or rectangular platforms indicates that, compared to other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of local leaders in the Yeongsan River Basin remained limited and did not extend beyond the collective structure of the community. It was not until around the fourth century, as exemplified by the Doksuribong Tomb in Haenam, that mound tombs clearly expressing the personal authority of individual leaders began to appear.

After the fifth century, the emergence of monumental mound tombs across the Yeongsan River Basin suggests the rise of powerful local leaders whose authority was distinct from, and not simply subsumed under, the Baekje central regime.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assumed homogeneity among these local elites and, on that basis, infer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ekje center and regional polities. However, analysis of tomb structures and grave goods reveals considerable diversity among local leaders. In particular, their responses to Baekje's reorganization of regional societies into provincial units were far from uniform. This study argues that such varied responses should be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exclusion in local governance.'

Keywords Yeongsan River Basin Region, Chief, Local Governance, Officialization, Silver Crown Ornament

